

English Worship Service

Pastor: Daniel J. Kim, Ph.D.

11:15 a.m @ Westminster Hall

Prelude

* Call to Worship

Praise & Worship

* Apostles' Creed

* Doxology

Representative Prayer

Offering

* Offering Song

* Offering Prayer

Welcome/Fellowship

Scriptural Reading

Anthem

Sermon

* Hymn

* Benediction

* Lord's Prayer Song

Pianist

Pastor

Praise Team

Congregation

Congregation

Brother Guychuang Panmei

Congregation

Together

Pastor

Congregation

Pastor

Jerusalem Choir

Pastor

Congregation

Pastor

Congregation

(* Please stand)

“ Divine Commission ”

Exodus 3-4

Moses is considered the prophetic prototype in the Old Testament. Those other outstanding prophets (such as Samuel, Elijah, Isaiah, Jeremiah, Ezekiel, and the Servant of Yahweh) were in the lineage of Moses the prophet. What distinguished these prophets from other types of leadership, such as priests and kings, was their personal sense of divine call and commission. Basically, the prophets were those who were personally called and commissioned by God to proclaim the message of the Lord.

Exodus 3-4 is a classic text on divine call/commission of a prophet. The text actually belongs to a literary genre called “call narrative” and features the main elements characteristic of such a narrative. First, it has the element of divine encounter: presence and voice of the Angel of Yahweh in the burning bush. Second, it has the element of commissioning word: “Go … I am sending you …” Third, it has the element of objection by the prophet: “Who am that I should go … ? … What if they do not believe me …? …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 …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Fourth, it has the element of divine assurance: through the words, “I will be with you” ; through miraculous signs: staff into snake, hand into leprous state, water into blood; and through human assistance of Moses’ brother Aaron. The basic idea is that the Lord who initiates the call and commission of his servants will be responsible to assure and equip his servants to fulfill their commission. Likewise, we can be convicted that if the Lord has indeed determined to use us in any ways, He will make His intents clear to us and enable us so that we may be successful to accomplish his will. Thus, despite all our fears and inadequacies, we are encouraged to be bold and courageous in all our endeavors for God.

Announcements

-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oom 104.

- Please join our various study groups at Room 104 each Sunday:

9:30 am - “Spiritual Leadership” (taught by Pastor Daniel)

1:00 pm - “Gospel of John” (led by Brother Gai)

1:00 pm - “Esteem in Christ” (led by Sister Cing)

- We need volunteers (especially for soprano and tenor parts) to serve with the Jerusalem Choir.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 Ⅲ, 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랑부 예배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새가족부	등록필수반		오전 10시	602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직분자필수반		오후 12시40분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학습보충반		오전 10시	607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세례준비반				
토요꿈나무영여성품스쿨		화기동 토 9:30-12:30	701 호		오후 12시40분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장 년 부(오전)		오전 10시	본 당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장 년 부(오후)		오후 3시30분	702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청년 3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3호 / 701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1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 광 유문건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인규 노정호 천세종

교역전도사

최민혁 박다형 허승일 구본혜 Gaichuang Panmei, YunZamCing

협동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천 김다니엘

선 교 사

강아곰주하나 권요셉조예스디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영-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말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제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원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알-백순미(타기노동자), 이선희(영월선교) 탕, 켄, 조,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쟁,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델(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제23권 제41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3년 10월 13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행복한 전도자”

(“A Blessed Evangelist”)

■ **딤후 4:1-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이제 발대식과 함께 사명자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7주간의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 죽음을 앞에 둔 담대한 사도의 모습

(딤후. 4: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영어로 “drink offering”으로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물을 붓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치 “전제”처럼 그 인생이 순교를 위해 부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딤후.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 음 이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 담대하고 순고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 바울의 것과 같은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딤후. 4: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첫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면전에서 엄중히 명합니다. 둘째,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 즉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할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히 명합니다.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이렇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과, 최후의 심판자와,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무엇을 그토록 엄중하게 명하고 있을까요?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영원한 지옥의 불을 믿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의 구원의 문제보다 더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제목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겔. 33: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의 피 값을 주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맺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점점 더 잘 맺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복음이 내 중심에 와 있는지?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성령의 열매를 점점 더 풍성히 맺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